태국 방송통신 규제 제도 비교 및 협력강화 출장 결과 보고

◆ 기　　간 : 2016. 11. 14(월) ~ 11. 18(금)

◆ 방문지역 : 태국(방콕)

2016. 11.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Ⅰ 개요

1. 출장 목적

o ITU(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, 국제전기통신연합) 텔레콤월드 전시회 참관하여 세계의 최신 정보통신 기기 관람 및 24시간 방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태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과의 협력강화

2. 출장 국가 : 태국 (방콕)

3. 출장 기간 : 2016년 11월 14일(월) ~ 18일(금), 3박 5일

4. 출 장 자 : 기획조정실 민원실 정우섭 팀장 외 방통위 직원 12명

※ 문정경, 형경욱, 김해나(이상 사무관), 강창수, 김기호, 강석종, 전혜선, 오승희, 이한빛, 이경은, 최윤지(이상 주무관)

5. 주요 활동

o 태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NBTC를 방문하여 방송·통신 규제 제도 비교를 통한 정책의 발전 방향을 토의하고 모바일 사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한 전자거래의 법적인 부문 등 정보 교류를 통해 협력 강화

5. 주요 일정

일 자	시 간	일 정	비 고
11.14(월)	09:00～13:00 15:00～17:00	이동 (인천 → 태국 수완나폼 공항)	KE 0657
11.15(화)	11:00～12:30	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(NBTC) 면담	administrative building
11.16(수)	10:00～12:00	ITU 텔레콤월드 전시회 참관	방콕 임팩트 컨벤션센터
	15:00～16:00	태국 전자거래개발진흥원(ETDA) 방문	22층 Brainstorm meeting room (Address : The 9th Tower Grand Rama9 Building(TOWER B) Bangkok)
11.17(목)	10:00～16:00	ITU 텔레콤월드 전시회 참관	
11.18(금)	- 06:00	이동(방콕 ▸인천)	KE 0652

Ⅱ NBTC 방문 면담 결과

방송·통신 규제 제도 비교를 통한 정책의 발전 방향 토의 및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실시

1. NBTC 현황

□ 현황

o 명　　칭 : NBTC(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)

o 설립년도 : 2010년 12월

o 대　　표 : Thares Punsri 위원장

o 위원회 구성 : 11명 위원 / 방송, 기획·관리, 통신, 지방·통합 등 4실

o 사 무 소 : 본 사 1개, 4개 지역 15개 지역 사무소

o 직　　원 : 1,157명

□ 주요 업무

o **(주파수 관리)** 방송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

o **(규제)**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통신 서비스 보장,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, 혁신적인 서비스 촉진을 통한 효율적 규제

o **(보편적 서비스 추진)** 방송 및 통신 분야 관련 기본적인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업무 계획 및 추진

o **(소비자 보호)** 불공정 행위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, 계약의 표준화, 서비스 품질 및 대체적 분쟁조정 제도 보완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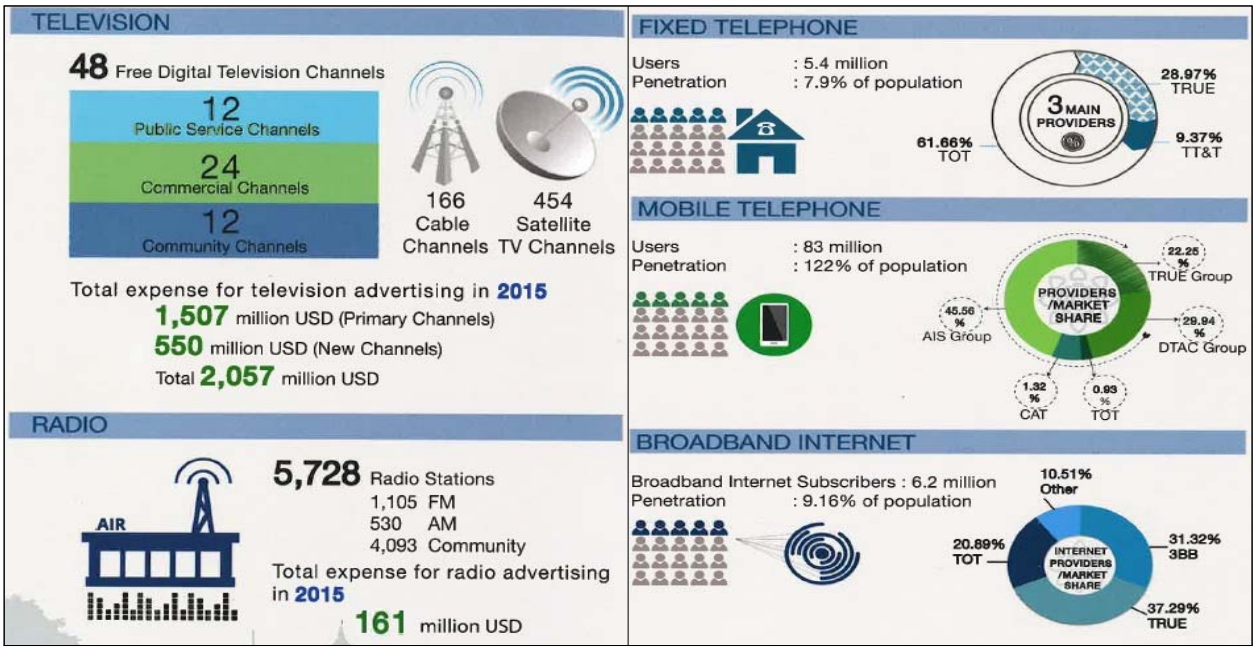
o **(연구개발)** BTFP*를 통한 방송·통신 연구개발 촉진

* **BTFT**(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and Developement Fund for the Public interest) : NBTC 산하기관으로 미디어리터러시 및 보편적 서비스 촉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음

2. 태국 방송 · 통신 현황(2015년 기준)

o **(방송)** TV의 경우 48개 무료 디지털 채널(12개 공공 서비스 채널, 24개 상업채널, 12개 커뮤니티 채널), 166개 유선 채널, 454개 위성 TV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, 라디오는 5,728개사 임(FM 1,105개, AM 530개, Commuity 4,093개)

o **(통신)** 유선전화 이용자는 540만 명, 휴대폰 이용자는 8,300만 명, 광대역 인터넷 이용자는 620만 명임



3. 면담 주요내용

□ 면담 개요

o 일시/장소 : 2016. 11. 15(화) 11:00 / NBTC 회의실

o 면 담 자 : NBTC Takorn Tantasith 사무총장, Korkij Danchaivichit 통신국장 등 6명

o 면담주제 : 방송·통신 규제 현황 비교 및 정책발전 방향 토론

< NBTC 사무처 조직도 >



□ 주요 논의내용

o **(방송심의 관련)** NBTC에서 방송심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,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기구는 없음

- NBTC 설립 이전에는 PR(Public Regulation)에서 사전심의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, 방송의 자유를 고려하여 현재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변경하였음

o **(유해 콘텐츠 관련)** 태국도 인터넷 유해콘텐츠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, 특히 황실모독 등 정치적 성격의 유해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음

- 이에 대해 인터넷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, 현재까지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여 문제시되는 개별적 사건별로 자체심의에 의존하는 상황임

o **(콘텐츠 분쟁 관련)** 저작권 관련 문제는 해당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NBTC에서 콘텐츠 거래계약 시에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

- 다만, 분쟁이 발생하여 NBTC에 중재 및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부분 개입하는 측면이 있음

o **(해외 교류 관련)** 태국은 예전부터 일본 방송콘텐츠의 영향력이 큰 편이며, 최근 방송·통신 콘텐츠 협력을 위해 일본과 MOU를 체결하고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음

- NBTC는 해외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, 최근 태국 내에서 한류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한국과도 활발한 교류를 희망함

- '16. 11. 24(목) - 25(금)에 부산에서 진행된 '공동제작 컨퍼런스'에 NBTC Supinya Klangnarong 부위원장이 참여하는 사안에 대해 언급

< 면담 사진 >



□ 시사점

o **(규제 관련)** 방송심의 사후규제, 저작권 등 사적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등 방송 및 통신의 자유 보장을 위한 규제제도는 양국 간 유사한 측면이 있음

-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, 향후 정부의 개입정도 및 개입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

o **(콘텐츠 교류)** 콘텐츠 교류를 통한 방송·통신시장 발전이 기대되며, MOU 체결·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교류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

4. TMC 방문

o TMC(Telecommunication Mediation Center)은 통신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NBTC 산하 분쟁조정기구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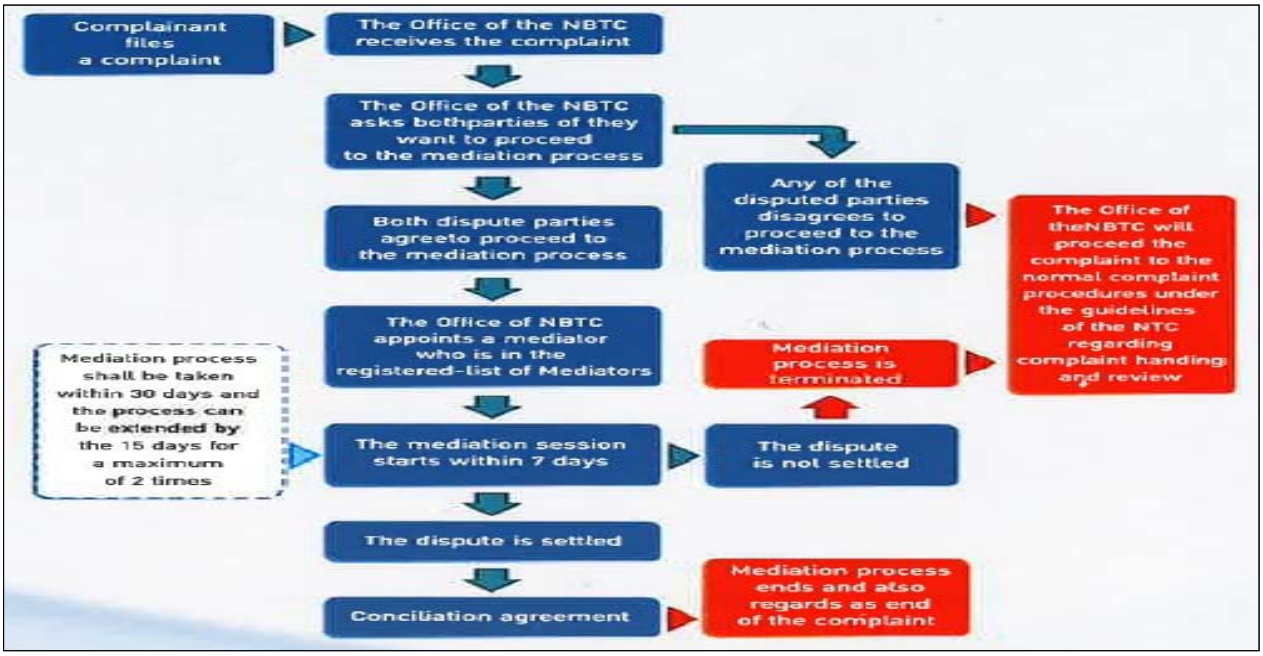
- NBTC가 지명한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통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

-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이 개시되며, 조정기간은 30일(15일씩 2회 연장 가능)임

< 방문 사진 >



< 분쟁조정절차 >



o

5. 선물 수령 관련

o 선물 수령 여부 : O (APT : 액자 1개)

o 선물 신고 여부 : X (100불 이하의 기념품)

Ⅲ iTU 텔레콤월드 참관 결과

□ 「ITU 텔레콤월드」- 정보통신분야 올림픽

o **(개요)** 193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민간-정부 연계 (Business to Government) 정보통신 전시회 및 포럼

o **(내용)** 각국의 정보통신담당 각료와 정책당국자,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(CEO),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기술과 제품을 발표·시연하고 판매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사

o **(전시분야)** IT, 정보통신 관련 전반(스마트시티, 통신, E-Learning 등) 3D, IoT, 자동화, 네트워크&보안, 모바일 앱&컨텐츠 등

ITU 텔레콤월드 2016 개요

○ 행사명(영문) : ITU Telecom World 20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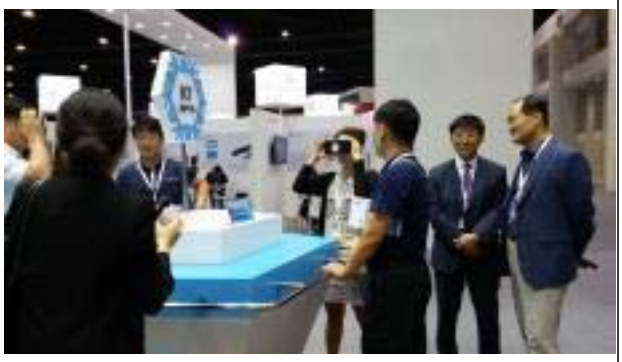
○ 기간/장소 : 16.11.14.~17.(4일간) / 태국 방콕 임팩트 컨벤션 센터

○ 특징 : 국제기구(ITU) 주최의 ICT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로 세계 각국의 기업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ICT 첨단 기술 시연, B2G, B2B 기업 네트워크 확대, 고위급 포럼 개최

○ 한국관 : 차년도 개최 예정국으로서 전시 참여(150m2 규모), 평창ICT 올림픽에 시연할 K-ICT 5대 중점 분야 기술 전시 및 시연

- 360 VR, 3D 무안경, IoT 제험 시연, 4K UHD 홍보영상 등
- 평창ICT 및 부산시 홍보관, 기업관 등 11개 기관·기업 12개 아이템으로 구성

□ 행사장 전경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K-ICT 평창관</td></tr>
<tr><td>
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K-ICT 평창관</td></tr>
<tr><td>
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업관</td></tr>
<tr><td>
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산시 홍보관</td><td>내부 전경</td></tr>
<tr><td>
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□ 한국관 참여기업 및 전시내용

구 분	그 림	주요 내용	비고
가상 현실 (VR)		o 3D 360° 영상 (KT) - 스키시뮬레이터, 한류콘텐츠 등 5개의 흥미로운 콘텐츠 시연	평창관
가상 현실 (VR) 무안경 3D		o 무안경 3D 가상 체험 (3D Factory) (봅슬레이 게임 체험 시연)	평창관
AR (홀로 그램)		o 홀로그램-랜즈 (3D Factory) - 가상현실 3D 홀로그램 체험 시연	평창관
4K UHD		o UHD (65'인치) (RAPA) - 평창올림픽 홍보 및 한류 콘텐츠 영상 시연	평창관
무안경 3D 초다시점 단말		o 무안경 3D 초다시점 단말(기가코리아) - 실제 물체가 있는 것처럼 위치에 따른 삼차원 이미지 3D 초다시점 단말	평창관

구 분	그 림	주요 내용	비고
IoT		**o 디에스피원** - IoT / M2M 솔루션 (국내 통신 신호 처리) - 위치추적시스템 - IoT 디바이스, 스마트시티 솔루션	기업관
IoT		**o 다물솔루션** - M2M 솔루션, IoT, 스마트홈 시스템	기업관
IoT		**o 액세스 모바일** - 모바일 광고 - 모바일 콘텐츠 - 통신사 부가서비스	기업관
IoT		**o 코발트레이** - 태블릿PC 판매관리시스템(POS)	기업관
부산시 홍보관	bto 부산관광공사 BUSAN TOURISM ORGANIZATION	**o 부산관광공사** - ITU 텔레콤월드 2017 부산 홍보관	부산관
부산시 홍보관	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	**o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** - 롯데정보통신·스마트시티 실증단지	부산관
부산시 홍보관	부산정보산업진흥원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	**o 부산정보산업진흥원** - 스마트 가로등	부산관

Ⅳ 전자거래 개발진흥원(ETDA) 면담 결과

인터넷,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개인정보 등 통신 정책의 발전 방향 토의 및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실시

1. ETDA 현황

□ 현황

o 명　　칭 : ETDA(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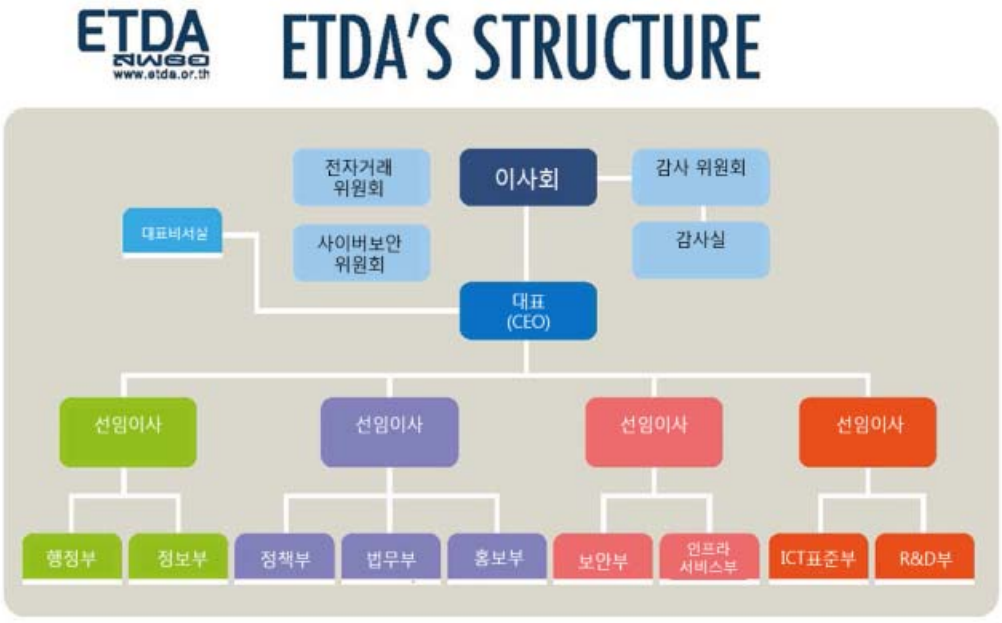
- 태국 정보통신부(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) 산하 공공기관

o 설립년도 : 2010년 11월

o 대　　표 : Sarangkana Wayuparb 위원장

o 사 무 소 : 4본부 9국

<조직도>



□ **주요업무**

o 전자거래 관련 진흥 및 지원 정책 추진, 전자문서 관련 R&D, 전자인증 관련 인프라 개발·운영, 사이버위협 대응(ThaiCERT 운영), ICT 기술표준 마련 등

2. 면담 주요내용

□ **일시/장소** : 2016.11.16(수), 15:00 / ETDA 회의실

□ **면담자** : Mrs. Surankana Wayuparb(대표)
Dr. Chaichana Mitrpant(부위원장) 등 총 6명

□ **면담내용**

o **(인터넷서비스 시장현황)** 2015년 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3천8백만명, 인터넷 이용률은 34.9%로 '09~'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.7%로 지속인 증가 추세

- 인터넷 이용시간은 1일 평균 6.4시간('16년 기준)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시간보다 많음('15년 대한민국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2시간)

※ baby boomer 세대인(1946~1964년생)의 태국 국민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1일 평균 4.5시간일 정도로 전 세대에서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음

< 2015년도 양국의 인터넷 이용 현황 비교표 >

구분	인터넷 접속률	컴퓨터 보유율	인터넷 이용률	인터넷이용시간 *
대한민국	98.5%	78.3%	87.9%	1일평균 : 2시간 1주평균: 13.6시간
태국	33.8%	33.9%	34.9%	1일평균 : 6.4시간 1주평균: 45시간

*(인터넷 이용시간) 대한민국은 2015년 기준, 태국은 2016년 기준임

*[출처] 2015인터넷이용실태조사(KISA) / 2016 ETDA 인터넷 조사결과 보고서

- 인터넷 접속시 이용하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(85.5%), 데스트탑 PC(62%), 랩탑PC(48.7%), 데블릿PC(30%), 스마트TV(19.8%) 순이며,

- 주된 이용용도는 소셜네트워크(96.1%), YouTube(88.1%), 정보검색(79.7%), e-BOOK(76.7%), e-Mail(75.8%)임

- 태국의 주요 웹사이트는 Google, Facebook, YouTube 등 글로벌 웹사이트와 태국 포털서비스인 Sanook.com과 Pantip.com 등이 있음

※ 태국에는 자국의 자체 검색엔진 웹사이트가 없으며, 주로 Google을 이용(99%)하고 있음

- 특히, 태국의 블로그, SNS 등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용 빈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, 주로 YouTube(97.3%) FaceBook(94.8%), LINE(94.6%)를 이용하고 있음

o **(전자거래 시장현황)** 2015년 태국의 e-Commerce 시장은 2,107,692.9 Million bath로 2014년 대비 3.65%성장하였으나, 2014년 시장이 2013년 대비 165% 급성장 한 것에 비하면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

- 2015년 전자거래 전체 규모 중 B2B(기업간 거래)는 58.37%, B2C(기업-개인간 거래)는 22.52%, B2G(기업-정부간 거래)는 19.11%를 차지하고 있으며,

- 이중 B2C 거래 규모는 **117억달러(약13조5천억)로** 동남아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임

※ 2015년 B2C 거래 규모(단위 : Billion US dallars)는 미국(359.3), 중국(322.1), 일본(118.59), 한국(25.4), 태국(11.7), 말레이시아(9.6), 싱가포르(3.45), 베트남(2.97), 인도네시아(2.6), 필리핀(2.3) 순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1위, 전 세계에서는 5위의 시장을 형성

- 태국 전자거래 내 사업체는 '14.7월 기준 12,479개로 매년 2,000개 정도의 신규사업체가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1~5인 정도로 구성된 소규모 업체가 대다수임

※ 현재 통신기기의 발달,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 등 수요자는 급증하고 있으나, 이에 비해 공급자가 부족한 상황

※ 이용이 가장 많은 전자거래 플랫폼은 독일 기업이 설립한 라자다(www.lazada.com)로 라자다는 동남아시아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

- FaceBook, LINE 등 소셜네트워크의 이용이 활발한 만큼 공동구매, SNS를 통한 상품상담·주문과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 유형의 구매 방식이 가장 많으며,

- 주로 가격이 저렴한 패션, 잡화, 화장품, 먹거리 제품 등에 집중되어 있음

※ 태국의 전자거래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, 느린 배송, 계좌이체 중심의 결제방식, 정보보안 불안, 이용자 불만처리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

o (**사이버 침해 대응현황**) 현재 태국은 전자거래의 이용 활성화 및 발전이 국가 경제 견인의 중요한 핵심사업임을 인식하여

- 전자거래의 기준마련,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사이버 보안강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

- ETDA에서는 해킹, 바이러스, 피싱 등 사이버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Thai CERT(Computer Emergencys Response Team) 운영하고 있으며

- Thai CERT의 주요 기능은 사이버 침해 신고접수 및 대응, 피싱 등 유해사이트 차단, 주요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임

※ 2015년의 경우 4,371개의 사이버 침해 신고접수 및 대응

o (**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현황**)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하여는 금융, 통신 등 각 분야별로 가이드라인 정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률과 전문기관은 부재한 상태

-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개인정보를 보유했던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유출사실을 공지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ETDA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, 정부 등 관련기관에서의 조사·제재는 미흡한 수준

- 현재 ETDA에서는 전자거래의 신뢰구축을 위해 사이버 보안,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(현재법률안 국회 상정 중)

[기타 질의응답]

o 태국의 경우 스팸관련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?

☞ 스팸규제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(2007년 제정) 있으나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 중에 있으며, 매뉴얼도 만들고 있음.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 방법(opt-in 또는 opt-out)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음

* ETDA 설문조사결과 태국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목록 중 스팸메일은 전체 12개 항목 중 6위(13%), 가장 불편한 점은 느린 접속 속도임(70.3%)

o 개인정보 유출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?

☞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고객에게 통지하고, 중앙은행이 참여해서 대응하고 있지만, 그 외 분야는 은행처럼 강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음.

- 각 분야별로 개인정보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정도가 있고 아직 관련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완전하지 않으나, 기본법률이 제정되면 별도의 관련 조직을 마련하고 규제해 나갈 계획임

o 피싱, 스미싱, 파밍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?

☞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중국을 통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, 국가방송통신위원회(NBTC)와 전자거래개발진흥원(ETDA)이 피해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하고 있음

< 방문 사진 >



□ 시 사 점

o (**전자거래시장 진출**) 태국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,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등 ICT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태국의 전자거래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

- 특히, 태국의 B2C 시장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동남아시아 전자거래의 시장을 선점할 필요

- 또한, 태국은 화장품, 액세서리 등 한류 컨텐츠와 연계된 상품의 인기도가 높고, 스마트폰 및 전자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적합하므로,

- SNS를 통한 실생활 홍보,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결제시스템 도입, 한국의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업체의 동반지출 등 태국시장 진출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진출기회 마련 필요

o (**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협력강화**)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

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관련 기본법률 제정을 준비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미흡

- 태국으로 이전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PEC 등 국제회의를 통해 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제정 경과 파악과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

- ETDA는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과 MOU('16.4월)를 체결하고 정보보호, 전자거래,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분야에 대한 협력 추진

- 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률 제정 후 APEC의 CBPR (Cross-Border Privacy Rule, 안전한 개인정보의 교류 이전을 위한 글로벌 인증제도) 가입 독려 필요